

## 메시지 5

### 요셉—몸의 생활을 위해 성숙한 성도가 왕으로서 다스리는 방면의 예표

성경: 창 49:22, 25-26, 롬 5:17, 21, 14:17-18, 잠 4:18

- I. 영적인 체험에 따르면 야곱과 요셉은 한 사람이다. 요셉은 성숙한 이스라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방면, 곧 야곱의 성숙한 본성 안에서 그리스도로 조성된 부분을 대표한다. 그리스도로 조성된 성숙한 성도로서 온전한 사람인 야곱은 요셉을 통해 왕으로서 다스렸다—창 41:39-44, 히 6:1상, 갈 6:8, 5:22.
- A. ‘꿈의 대가’(창 37:19)인 요셉은, 하나님의 관점에 따라 그분의 백성이 생명으로 충만한 곡식 단이고 빛으로 충만한 천체라는 꿈을 꾸었다. 성숙한 생명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방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유죄 판결하지 않고 목양하고 귀히 여긴다(창 37:5-11).
  - B. 성숙한 생명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방면은 주님의 임재를 항상 누리는 생활이다. 어디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권위, 곧 다스리는 능력이 있다—창 39:2-5, 21-23.
  - C. 요셉은 비록 자신의 꿈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을지라도, 감옥에 있는 두 동료 죄수들의 꿈을 해석할 믿음과 담대함이 있었다(창 40:8). 결국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 믿음으로 말한 것을 통해 간접적으로 감옥에서 풀려났고(창 41:9-13),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담대하게 말한 것을 통해 직접적으로 보좌를 얻게 되었다(14-46절). 해방과 권위가 모두 말하는 것을 통해 그에게 주어졌다.
  - D. 우리는 자신의 느낌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상에 따라 말해야 한다.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꿈꾸고 보는 사람들이다.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진리의 절대성에 따라 말해야 한다—행 26:16-19.
- II. 요셉의 삶의 기록은 그 영의 통치권을 제시해 주는데, 그것은 그 영의 통치권이 성숙한 성도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방면이기 때문이다. 그 영의 통치권(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생활, 곧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안에서 신성한 생명의 규제와 제한과 통치 아래 있는 생활)은 그 영의 다른 어떤 방면보다도 더 높다—롬 5:17, 21, 14:17-18, 비교 고후 3:17-18, 딤후 4:22, 계 4:1-3.
- A.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 대한 인간적인 느낌과 감정으로 가득했지만 그 영의 통치권 아래 자신과 자신의 모든 감정을 억제했다.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냉철하고 지혜롭게 또한 분별력을 갖고 다루었으며, 그들을 온전하게 하고 건축하기 위하여 그들의 필요에 따라 그들을 훈련하였다. 그 결과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증거로서 함께 사는 집합적인 한 백성이 될 수 있었다—창 42:9, 24, 43:30-31, 45:1-2, 24.
  - B. 요셉은 자신을 부인하고, 자신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 아래 두며,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권익을 위해 처신하였다.
  - C. 그리스도의 인간 생활을 묘사해 주는, 하나님의 규제 아래 있던 요셉의 생활은 신성한 생명의 성숙과 온전함을 분명히 보여 주었고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왔다—요 5:19, 30하, 7:16, 18, 14:10, 마 8:9-10.
  - D. 우리는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다루는 것에서 그가 차분하고 냉철하며 분별력 있는 생활, 곧 왕국 생활의 실행인, 자아를 부인하는 생활을 한 것을 본다—대하 1:10, 사 30:15상, 빌 1:9, 딤후 5:1-2.
  - E. 요셉의 감정과 느낌과 고려와 선호는 절대적으로 그 영의 통치권과 통제 아래 있었다—잠 16:32.
  - F. 요셉의 목에 걸린 금 사슬은 복종 안에서 표현된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성령의 아름다움을 상징한다. 요셉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생활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목이 성령에 의해 사슬에 묶여야 한다는 것, 곧 우리의 의지가 정복되고 굴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

준다—창 41:42, 아 1:10.

- G. 자신을 이집트에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요셉의 깨달음은 (비록 요셉에 대해 그 형제들이 악한 의도를 갖고 행했을지라도—창 45:5, 7, 50:19-21, 비교 41:51-52)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에 있는 바울의 말의 실제이다.

III. 요셉은 고난을 겪고 자신을 부인했기 때문에 생명 공급의 풍성을 얻었다. 사람들은 그에게서 음식을 얻기 위해 네 종류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했는데, 그것은 그들의 돈(편리함)과 가축(생계 수단)과 땅(자원)과 그들 자신이었다—창 47:14-23, 계 3:18.

- A. 분배자이신 주님께로부터 생명 공급을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께 우리의 편리함과 생계 수단과 자원을 드려야 한다. 그분께 더 많이 드릴수록 우리는 그분에게서 더 많은 생명 공급을 받을 것이다.
- B. 궁극적으로, 주님께로부터 만족을 위한 음식과 재생산을 위한 씨를 포함한 최상의 몫을 받으려면(창 47:23) 반드시 우리 자신 곧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을 그분께 넘겨드려야 한다(레 1:4).

IV. 열매가 무성한 가지인 요셉(창 49:22)은, 그분의 가지들인 그분의 믿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뵈어나가게 하기 위한(요 15:1, 5) 가지이신 그리스도(사 11:1-2)를 예표한다. 샘은 열매 맺음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상징하고(시 36:9, 렘 2:13), 가지들이 담을 넘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지들인 그리스도의 믿는 이들이 모든 제한을 초월하여 그리스도를 확산하고 모든 환경에서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을 상징한다(빌 1:20, 4:22, 몬 10).

V. 요셉에게 주어진 우주적인 축복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을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된다.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믿는 이들에게 주어진 축복으로서 새로울 것이다—창 49:25-26, 신 33:13-16, 계 21:5.

- A. 변화는 신성한 생명의 새로움으로 신진대사적으로 바뀌는 것이고, 성숙은 우리를 바꾸는 신성한 생명의 새로움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며, 축복은 생명의 넘쳐흐름이다. 요셉과 함께한 아굽의 삶의 마지막은 그의 빛남의 절정으로서 축복하는 삶이었다—잠 4:18, 히 11:21, 창 47:7, 48:15-16.
- B. 오직 하나님만이 새로우시다. 무엇이든 하나님을 떠난 것은 낡은 것이지만, 무엇이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새롭다—고후 5:17.
- C.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속한 무언가가 우리 속에 떨어져, 우리가 몸의 생활을 위해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한다—고후 4:16, 롬 12:1-2.
- D. 우리의 새로움의 축복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비결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그분께서 모든 것 안으로 들어가시도록 하는 것이다.
- E. 요셉에게 주어진 '우주적인' 축복은 축복이 모든 곳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. 우리의 찬송은 타락에서 온 저주에 속한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꿀 것이다—엡 5:20, 살전 5:16-18.